

## 결핵퇴치를 위해 한마음을...



### 결핵의 날은 언제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로버트 코호가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고 이를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수천년간 인류의 생명을 앗아간 결핵퇴치의 길을 열어 준 1882년 3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IUATLD)은 결핵균 발견 100주년이 되는 1982년에 “세계 결핵의 날”(Universal Tuberculosis Day)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이 날을 맞이하여 전세계 항결핵 민간단체들은 결핵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업 및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세기를 넘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퇴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 나라도 1982년 3월 24일을 기해 체신부에서 결핵균 발견 100주년 기념엽서를, 주택은행에서는 결핵균 발견 100주년 기념 주택복권을 발행했으며 대한결핵협회는 기념식과 전시회, 비디오 상영 행사를 가졌다. 이로부터 보건복지부와 국

제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의 후원하에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결핵사업의 숨은 공로자에게 복심자대상을 수여하고 결핵과 관련하여 기

◀ 제18회 세계 결핵의 날 행사에서 복심자대상 시상 모습

념강연의 자리를 마련하여 아직도 중요한 보건문제로 남아있는 결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 복심자가 뭔가요?



복심자(The Red Double-Barred Cross)는 9세기경 어느 기독교 교파의 상징으로 쓰인 적이 있다. 그 후 11세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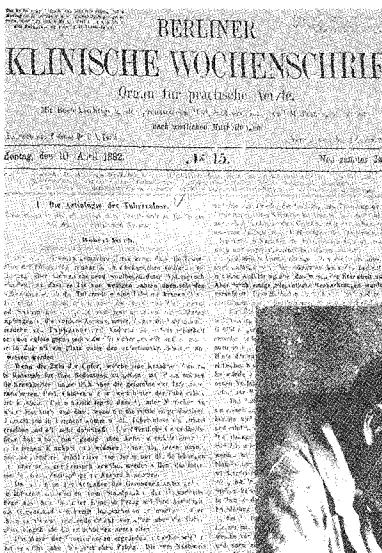
제1회 십자군 지휘자인 로페인 공작(고드프로와 드 부이옹)이 복심자를 방폐의

문장으로 삼아 싸워 이긴 일이 계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인식되었다. 세계 공통의 결핵예방 운동의 상징으로 된 것은 1902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결핵회의 석상에서 프랑스의 셀시론 박사(Dr. Gilbert Serrison)가 이 표식을 결핵 예방운동의 국제적 상징으로 할 것을 제창하면서 채택되었다.

붉은 색을 원칙으로 하는 이 표식은 크리스마스 썰은 물론 결핵협회의 기(旗)나 팜플렛, 결핵검진 차 기타 결핵퇴치 사업을 위한 출판물과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 로버트 코흐와 결핵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Robert Koch)는 1882년 “결핵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결핵균 발견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발표에서 결핵에 걸린 생체 병변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어야 하며, 발견된 결핵균을 인공배지에서 순수하게 배양할 수 있어야 하며 분리배양된 결핵균을 실험동물에 접종했을 때 결핵병변을 일으켜야 하



◀ 1882년 3월 24일 Robert Koch는 결핵균의 발견을 발표했으며 그 논문 “결핵의 원인론”을 Berliner Klinische Wochenschrift에 게재했다 Koch의 원저논문 첫 페이지이다



▶ Koch의 결핵균 발견은 결핵파의 오랜 싸움에서 쟁취한 인류의 위대한 개가였다. 결핵균의 발견으로 결핵의 진단학, 예방과 치료법 등이 발전할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 관리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Robert Koch 원내는 확대한 결핵균

며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동물의 병변에서 다시 결핵균을 분리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완전무결하게 충족시켰다. 이 업적을 넣게 한 네가지 조건들은 오늘 날까지 “코흐의 4원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세균학의 근본원리로 통용되고 있다. 코흐의 결핵균 발견은 수천년간 혼미를 거듭했던 결핵의 원인에 대한 구구한 설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인류가 싸워야 할 적의 실체를 알게 한 위대한 개가가 아닐 수 없다.